

## 간호대학생의 직업인성에 대한 주관성 연구

김 분 한<sup>1)</sup> · 김 윤 숙<sup>2)</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고도 분화·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직업의 종류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화되고 다양한 직업세계에 적응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과 직업을 통해 꿈을 펼치고 행복과 보람을 추구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동안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누리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적성에 합당한 진로를 선택한다(Choi, 2002).

진로의 선택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국가경제발전 및 효율적인 사회문화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Park, 2003). 우리나라는 1997년 말 IMF이후 경제 위기로 인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고등학교 입학에서부터 올바른 진로 선택보다는 취업을 고려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였다.

특히, 대학 졸업 후 진로를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기에 직면하면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취업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소신 있는 직업을 선택 하지 못하게 된다.

직업 선택은 흥미의 표현이고 흥미의 표현은 인성의 표현이다. 한 개인의 흥미유형과 직업의 일치도는 개인의 일생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가정을 줌으로써 흥미는 능력 및 적성과 함께 진로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olland, 1985; 1992).

직업 인성이란 한 개인이 동료, 생물학적 유전, 부모, 사회 계층, 문화, 물리적 환경과 같은 사회적, 역사적 요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독특한 성향이며 사람은 이런 성향에 따라 사고하고 인지하며 행동하게 된다(Park, 2003). 자신의 직업 인성을 고려하지 않는 진로 및 직업의 선택은 학습 참여도 및 성취도가 저하되고(Lim, Yoo, & Oh, 2001), 더 나아가 직장 내에서의 적응 부족이 역할 갈등과 만족감 저하로 이직과 삶의 질 저하가 원인이 된다(Lee, 1995). 또한, 인간은 자신의 직업과 성격이 상호 일치할 때 가장 행복하다(Holland, 1959). 이는 직업 인성에 맞지 않는 직업 선택은 각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직업 인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취업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어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고등학교를 인문계열, 취업관련 계열을 선택하게 되고, 대학 진학시 자신의 적성이나 성격에 맞는 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졸업 후 취업의 가능성과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은 과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4년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다가 취업전망이 좋은 전문대 취업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력 U턴 현상과 평생 직업을 찾기 전에 징검다리 취업, 서비스업 취업과 같은 취업 U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www.searchfirms.co.kr). 이러한 사회현상은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

주요어 : 간호대학생, 직업인성

1)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투고일: 2004년 11월 24일 심사완료일: 2005년 4월 25일

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한간호협회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사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webzine.koreanurse.or.kr).

간호학과를 졸업하면서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임상간호사로써 취업을 하지만, 적성이나 근무 형태나 직무 불만족으로 인해 해외 취업 및 유학, 의료보험공단, 여행사, 양호교사, 전문직 기자, 교수 및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로써의 자질 및 자아 성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대학생들의 커리어 개발 관련하여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정부 지원 및 대학의 특성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현재 간호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임상중심의 실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간호사의 초기 직업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사회학·교육학·심리학에서 직업인성과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Choi, 2002; Choi, 1997; Park, 2003)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간호학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가 간호사들의 성격 유형이나 간호대학생의 성격 유형과 학업과의 관계(Anchors, Robbins & Gershman, 1989; Kwon, 1998; Lim, Yoo & Oh, 2001) 등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객관성과 조작주의 등과 같은 양적인 연구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관점으로 부터 인간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하게 하고 이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해줌으로써 인간의 내면세계와 주관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인 Q방법론을 적용하여 (Kim & Won, 2000) 간호 대학생들의 직업 인성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직업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에 대한 유형별 특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 연구 방법

#### 표집방법

- Q-표본의 구성

간호 대학생들의 직업 인성에 대한 Q표본은 간호 대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직업인성에 관한 진술문이다. 대학생

<Table 1> Q-Statement

1. I prefer working outdoor to sitting at the desk.
2. I lik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seminar.
3. I have a broad network of relationship.
4. I prefer being specific to being abstract.
5. I am sociable and fond of intense activity.
6. I like observing, learning, investigating, analyzing in logical and objective ways and evaluating things.
7. My job requires concentration and cautiousness.
8. I keep in-depth relationship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9. I think before I act.
10. I am artistic; I take artistic pictures and get involved in dramas.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2. I am creative, self-disciplined and flexible.
13. I focus on future prospects.
14. I prefer documentation and businesslike tasks and I am excellent in dealing with figures.
15. I am good at delicate tasks and stick to schedule.
16. I am sociable and persuasive and affect and lead others.
17. I prefer being abstract and analytic to being specific.
18. I adapt to surroundings by expressing myself.
19. I focus on present.
20. I avoid problems arising from relationship with others.
21. I like teaching and taking care of others.
22. I participate in NGO activities.
23. I highly value ideological and religious aspects of things.
24. I have expertise and qualification for my job.
25. I mainly work on systemic arrangement of things, computer documentation.
26. I carry out my duty after setting a goal, direction and a detailed plan.
27. I am good at persuading others to sell things.
28. I am probably good at managing a company as I am a good leader.

들의 직업 인성에 대한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한 자료와 직업 인성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 면담한 자료를 통합하여 Q모집단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H대학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 2명, 사회학과 박사과정 1명과 간호학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중립적 면담을 통해 진술내용을 얻었으며, 면담시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문헌을 통한 Q모집단의 추출은 Holland(1985)의 직업인성 이론을 통해 직업인성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 자료는 모두 문항별로 진술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였으며, 여러 번 검토를 통해 직업인성이라고 생각되는 진술문이 모두 60개 추출되어 Q표본 선정을 위한 Q모집단을 완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 교수 1인과 Q방법론 전문가 1인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최종 28개의 Q표본 진술문을 선정하였다<Table 1>. 진술문의 내용 구성은 간호대학 교수와 Q방법론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회성 영역에 대한 진술문이 7문항, 관계성 영역에 대한 진술문이 5문항, 관심영역에 대한 진술문이 16문항이다.

또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 1명, 사회학과 박사 과정생 1명, 간호대학생 3인, 간호 대학원 박사과정중인 학생 5인에게 각 진술문에 대한 이해도와 명확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 ● P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학년, 가족 내 순위 등을 적절히 고려한 서술시 소재 일개 간호 대학생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년과 가족 내 순위를 다양하게 선택한 이유는 학년과 가족 내 순위의 차이에서 주관적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자료 수집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하였고, 익명성의 보장과 설문 및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 ● Q-분류과정과 방법

대상자에게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의문이 있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먼저 성별, 학년, 종교, 가족 내에서 순위 등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Q-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가장 긍정(동의)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부정(동의하지 않음)하는 진술문을 선택하여 7점 척도 상에 분류하도록 하였

다. 이때 의견이 정상분포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강제분포(forced-normal distribution)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양극에 놓인 진술문 (+3, -3) 6개를 채택한 이유를 각각 쓰도록 하였다.

###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처리는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항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은 문항(-3)을 1점으로 하여 2점(-2), 3점(-1), 중립 4점(0), 5점(+1), 6점(+2), 가장 동의하는 문항(+3)에 7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 후 컴퓨터에 입력시켰다. 자료의 분석은 PC Quant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Q요인 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 중 최선이라고 판단된 유형을 선택하였다.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은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유형은 참여자가 직업인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비슷한 의견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기 때문에 각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게 된다.

#### Q-유형의 형성

전체 연구대상자 27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은 8명, 제2유형은 6명, 제 3유형은 13명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각 유형 내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인 사람이 제 1유형에 6명, 제 2유형에 4명, 제 3유형에 3명이 속해 있었다<Table 2>.

각 유형별 인자가중치와 변량을 분석한 결과 3개 유형은 Q표본을 분석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전체 변량도는 53.03%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29.88%, 제2유형이 14.19%, 제3유형이 8.96%였다<Table 3>.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086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535,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220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Table 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samples

Type	id	factor weight	grade	sex	religion	birth order
1 (N=8)	27	2.8075	1	F	buddhist	1
	24	2.2754	2	F	none	1
	6	2.0327	3	F	protestant	2
	5	1.2130	3	F	catholic	1
	1	1.1333	3	F	protestant	2
	7	1.1151	4	F	none	1
	4	.7133	3	F	protestant	1
	26	.4698	3	F	protestant	2
2 (N=6)	23	3.0219	2	F	protestant	1
	15	1.8296	1	F	protestant	1
	21	1.3953	2	F	protestant	1
	9	1.1248	4	F	none	2
	13	.7888	1	M	none	2
	3	.0665	3	F	catholic	1
3 (N=13)	16	2.3562	1	F	buddhist	1
	20	1.7004	2	F	none	2
	19	1.6248	2	F	none	1
	8	.8959	4	F	catholic	3
	10	.8486	4	F	catholic	2
	18	.8278	1	F	buddhist	2
	2	.8067	3	F	protestant	3
	22	.7434	2	M	protestant	2
	11	.6381	1	M	none	1
	25	.4512	2	F	none	2
	17	.4356	1	F	none	1
	12	.3437	1	M	buddhist	2
	14	.3327	1	F	protestant	4

<Table 3> Eigen Values and Variances for each type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Eigen value	8.0684	3.8312	2.4181
Variance	.2988	.1419	.0896
Cumulative Variance	.2988	.4407	.5303

<Table 4> Correlation between types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제 1유형	1.000		
제 2유형	.086	1.000	
제 3유형	.535	.220	1.000

직업 인성의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해당 또는 가장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Z-score)가 ±1.00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고,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 1유형: 세심형

제 1유형은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징검다리도 두들겨 건너고자하는 조심성을 나타냈으며, 친밀한 계획 하에서 행동하는 것을 즐겼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나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인 관계를 가진다', '관찰, 학습, 조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말하는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추상적인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우선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사교적이고 남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끈다', '앞에서 남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에게 물건을 파는데 뛰어난 설득력이 있다', '정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NGO활동을 한다' 등의 순이었다<Table 5>.

제 1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싫어하여 짜인 일정 및 계획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다른 진술문에 대해서도 보기 좋게 나열하고 다수보다는 소수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항목에 대해 긍정한다고 답하였다.

&lt;Table 5&gt; Descending array of z-score(greater than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1

No	Q-Statement	Z-Score
8	I keep in-depth relationship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1.45
6	I like observing, learning, investigating, analyzing in logical and objective ways and evaluating things.	1.40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29
4	I prefer being specific to being abstract.	1.27
9	I think before I act.	1.24
16	I am sociable and persuasive and affect and lead others.	-1.04
28	I am probably good at managing a company as I am a good leader.	-1.46
27	I am good at persuading others to sell things.	-1.65
2	I lik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seminar.	-1.83
22	I participate in NGO activities.	-2.10

이 유형의 특성은 소수와의 깊이 있는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말보다는 글로써 표현하면서 행동보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활동이나 간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 1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8명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3학년이 5명, 1, 2, 4학년이 각각 1명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고, 종교는 기독교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가족 내 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제 1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긍정하는 항목은 '말하는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관찰, 학습, 조사,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평가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료와 사무적인 일을 즐기고 숫자 개념이 탁월하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취급하기를 좋아한다',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우선한다' 등이며, 부정하는 항목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활동적인 외근이 더 좋다', '나는 여러 사람과 폭 넓은 대인관계를 갖는다', '사교적이고 남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끈다' 등이다<Table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제 1유형은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계획 하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 1유형을 '세심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 2유형: 적극형

제 2유형은 다수의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활동을 즐기면서,

상황 파악에 신속하면서 변화에 대한 탁월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였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사교적이고 남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끈다', '나는 창조적이고 자율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나는 여러 사람과 폭 넓은 대인 관계를 갖는다', '현재의 초점을 맞춰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표현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대처한다', '사교적이고 정열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말하는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자료와 사무적인 일을 즐기고 숫자 개념이 탁월하다', '타인에게 물건을 파는데 뛰어난 설득력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한다', '정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순이었다<Table 7>.

제 2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사교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하고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정확히 표현하여 설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어떤 모임에서 갑작스럽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나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좋아하고 병원 환경과 같이 응급상황에서의 빠른 상황 파악과 의사 결정하는 일을 즐기는 편이다.

제 2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6

&lt;Table 6&gt; Type 1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292	-1.191	2.483
6	I like observing, learning, investigating, analyzing in logical and objective ways and evaluating things.	1.398	-.144	1.542
14	I prefer documentation and businesslike tasks and I am excellent in dealing with figures.	.615	-.861	1.476
4	I prefer being specific to being abstract.	1.271	.043	1.228
9	I think before I act.	1.244	.188	1.056
1	I prefer working outdoor to sitting at the desk.	-.405	.633	-1.038
3	I have a broad network of relationship.	-.671	.481	-1.153
16	I am sociable and persuasive and affect and lead others.	-1.039	.475	-1.513
5	I am sociable and fond of intense activity.	-.639	1.030	-1.670

<Table 7> Descending array of z-score(greater than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2

No	Q-Statement	Z-Score
16	I am sociable and persuasive and affect and lead others.	1.55
12	I am creative, self-disciplined and flexible.	1.40
3	I have a broad network of relationship.	1.30
19	I focus on present.	1.26
18	I adapt to surroundings by expressing myself.	1.15
5	I am sociable and fond of intense activity.	1.05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16
14	I prefer documentation and businesslike tasks and I am excellent in dealing with figures.	-1.27
27	I am good at persuading others to sell things.	-1.44
20	I avoid problems arising from relationship with others.	-1.71
2	I lik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seminar.	-1.84

<Table 8> Type 2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28	I am probably good at managing a company as I am a good leader.	.872	-1.591	2.463
16	I am sociable and persuasive and affect and lead others.	1.546	-.818	2.364
3	I have a broad network of relationship.	1.297	-.503	1.800
12	I am creative, self-disciplined and flexible.	1.405	.193	1.212
9	I think before I act.	-.163	.891	-1.054
10	I am artistic; I take artistic pictures and get involved in dramas.	-.852	.304	-1.156
14	I prefer documentation and businesslike tasks and I am excellent in dealing with figures.	-1.267	.080	-1.347
20	I avoid problems arising from relationship with others.	-1.714	.568	-2.281
8	I keep in-depth relationship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726	1.800	-2.526

명중 4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학년은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긍정하는 항목은 '앞에서 남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해서, 회사 운영을 잘 할 것이다', '사교적이고 남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치고 이끈다', '나는 여러 사람과 폭 넓은 대인관계를 갖는다', '나는 창조적이고 자율적이며 융통성이 있다' 등이며, 부정하는 항목은 '행동보다는 생각하는 것을 우선한다', '나는 예술 사진을 찍고, 역극 활동 등 예술적 사고의 성향이 있다', '자료와 사무적인 일을 즐기고 숫자 개념이 탁월하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한다', '나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인관계를 가진다' 등이다<Table 8>.

제 2유형은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활동과 남을 설득하길 좋아한다는 항목에 긍정하였으며, 융통성과 주도적인 활동에 더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적극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제 3유형: 소극형

제 3유형은 소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갖기를 원했고, 타인을 리더하기 보다는 결정된 의사를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나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인 관계를 가진다', '나는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일한다', '나는 예술 사진을 찍고, 연극 활동 등 예술적 사고의 성향이 있다', '사교적이고 정열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말하는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사상적, 종교적인 일에 가치를 둔다', 'NGO 활동을 한다', '앞에서 남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해서 회사운영을 잘 할 것이다', '정

<Table 9> Descending array of z-score(greater than ±1) and item descriptions for type 3

No	Q-Statement	Z-Score
8	I keep in-depth relationship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2.15
13	I focus on future prospects.	1.25
10	I am artistic; I take artistic pictures and get involved in dramas.	1.23
5	I am sociable and fond of intense activity.	1.01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23
23	I highly value ideological and religious aspects of things.	-1.49
22	I participate in NGO activities.	-1.67
28	I am probably good at managing a company as I am a good leader	-1.73
2	I lik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seminar.	-2.04

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순이었다 <Table 9>.

제 3유형에 속하는 응답자를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좋지만 여러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는 편이어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다”고 하였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자신만의 일을 갖고 싶어하는 항목에 대해 긍정한다고 답하였다.

이 유형의 특성은 사교적이면서 정열적인 활동은 소수와의 깊이 있는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와의 사교적인 모임보다는 소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술 사진을 찍거나 연극 활동을 즐긴다.

제 3유형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전체 13명중 1, 2학년이 10명을 차지하였다.

제 3유형은 타 유형에 비해 긍정하는 항목은 '나는 예술 사진을 찍고, 연극 활동 등 예술적 사고의 성향이 있다', '나는 소수와 깊이 있게 대인관계를 가진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피한다' 등이며, 부정하는 항목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문제를 취급하기를 좋아한다', '사상적, 종교적인 일에 가치를 둔다', '말하는 것보다 주로 글로 표현한다', '앞에서 남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해서, 회사 운영을 잘 할 것이다' 등이다 <Table 10>.

제 3유형은 다수보다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정해진 규칙이나 업무 속에서 역할을 이행하는데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소극형'이라고 명명하였다.

#### ● 모든 유형에서 공통된 의견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 유형은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총 10개의 문항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Table 11>.

모든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한 항목을 통하여, 간호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의 일에 전문성과 인증된 자격증을 갖추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간호 대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들을 통하여 주위 환경을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집중하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하였으며, 현실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 논 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추구하고, 한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인성과 직업적·환경적 특성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사인성(社人性)과 환경간의 일치가 작업환경, 직업적·학문적 성취, 안정, 만족을 도출한다(Holland, 1992; 1985).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활용하고 태도와 가치관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Table 10> Type 3 items and z-scores greater or less than all others

No	Q-Statement	Z-Score	average	difference
10	I am artistic; I take artistic pictures and get involved in dramas.	1.231	-.738	1.969
8	I keep in-depth relationship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2.147	.364	1.783
20	I avoid problems arising from relationship with others.	.873	-.726	1.598
4	I prefer being specific to being abstract.	-.215	.785	-1.000
23	I highly value ideological and religious aspects of things.	-1.486	-.395	-1.091
11	I prefer writing to talking.	-1.226	.067	-1.293
28	I am probably good at managing a company as I am a good leader.	-1.727	-.292	-1.435

<Table 11> Common items in all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 type

No	Q-Statement	Z-Score
19	I focus on present.	.86
13	I focus on future prospects.	.80
26	I carry out my duty after setting a goal, direction and a detailed plan.	.64
24	I have expertise and qualification for my job.	.59
18	I adapt to surroundings by expressing myself.	.53
7	My job requires concentration and cautiousness.	.50
25	I mainly work on systemic arrangement of things, computer documentation.	-.32
17	I prefer being abstract and analytic to being specific.	-.49
27	I am good at persuading others to sell things.	-1.28
2	I like to participate in political seminar.	-1.90

선호하며 바람직한 문제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환경을 추구하며, 한 개인의 행동은 그의 인성과 그가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Choi, 2002; Park, 2003). 이는 개인의 성격은 그들이 직업적 선택을 통해서 표현되고, 개인의 직업적 만족, 안정, 성취 그리고 적응은 개인의 성격과 직업 환경간의 적절한 연결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R), 탐구적(I), 예술적(A), 사회적(S), 설득적(E), 관습적(C) 유형의 여섯 가지 인성 중 하나로 분류되며,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도 인성과 동일한 현실적(R), 탐구적(I), 예술적(A), 사회적(S), 설득적(E), 관습적(C) 유형의 여섯 가지 환경 중 하나로 분류된다(Holland, 1985). 현실적 유형(R)은 기계, 도구, 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작 활동 내지는 신체적인 활동을 좋아하지만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친밀한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곤란함을 느낄 수 있다. 탐구적 유형(I)은 탐구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 지적 호기심이 많으며, 학구적이고, 나서지 않으며,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잘 타고 신중하다. 예술적 유형(A)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하며 문학, 미술, 연극, 영화와 같은 문화 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선호한다. 사회적 유형(S)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며, 친절하고, 이혜심이 많으며, 우호적이고, 사회성이 있으며, 외향적이고, 따뜻하며, 재치가 있고, 협동적이며, 남을 잘 도와주고, 봉사적이며, 감동적이고 이상주의적이다. 설득적 유형(E)은 언어의 표현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관습적 유형(C)은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성과 세밀함을 요구하는 사무적 일이나 계산적인 일, 조직적 및 구조적 업무를 선호한다(Choi, 2002; Lee, 2001; Park, 2003).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인성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은 '세심형', '적극형', '소극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은 '세심형'으로 일 처리하고 계획하는데 있어서의 주도면밀함을 보여주는 형으로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짜인 일정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고,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측면에 더 가치를 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유형은 가족 내 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8명중 5명으로 타 유형에 비해 첫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 첫째가 54.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결과(Hwang & Kim, 2002)와 유사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책임감을 많이 요구한 첫째가 졸업 후 취업률이 좋은

간호학과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MBTI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성격유형을 연구한 결과 ISTJ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Hwang & Kim, 2002; Lim, Yoo & Oh, 2001), ISTJ 유형은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한 유형으로 모든 일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며 책임감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Myers & McCaulley, 1995), 또한 현실적이어서 전공학습이나 실습을 통한 교육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Hwang & Kim, 2002). 이는 제 1유형의 객관적 분석·평가, 행동 전에 생각을 우선함으로써 매사에 철두철미함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계획성이 있는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 간호학과를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은 수학이나 과학적인 능력이 있으나 지도력이나 설득력이 부족하며 사회적인 관계에는 무관심해 보이고 공동작업보다는 개인적 작업을 선호하는 Holland(1985)의 '탐구적 유형'과 유사하다(Choi, 2002; Lee, 2001; Park, 2003).

이 유형에 속한 간호 대학생들은 다수의 환자를 접하는 병동보다는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특수파트의 배치나 자료 수집 및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감염관리실, 간호 연구, QA실과 같은 부서에 배치하여 자신의 인성에 맞는 일을 가짐으로서 흥미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유형의 단점인 지도력과 설득력 부족, 사회적 관계의 무관심이나 공동작업의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합숙 훈련, 커뮤니티 활동, PBL교육방법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유형은 '적극형'으로 대인관계와 같은 관계성과 사회성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정확히 표현하고 설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유형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주위환경에 대처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Holland(1985)의 '사교적 유형'과 유사한 이 유형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활동을 선호하며, 타인을 육성하고 계발시키는 일을 좋아하며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사회 문제 및 인간관계 등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유형이다(Choi, 2002; Lee, 2001; Park, 2003).

성격 특성이 외재론자인 경우 직무 특성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 Park, 1999), 외향성의 선호경향인 간호 대학생들이 이타주의와 유머와 같은 방어기제 사용과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Hwang & Kim, 2002), 이는 제 2유형이 창조적·자율적·운동성 있는 성격과 폭 넓은 대인관계와 자기표현을 통한 주위환경 대처로 일을 할 때와 조직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자율지향성의 성격 유형이 역할 과부하, 역할 불충분, 역할 모호성, 역할 경계 등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결과(Kim, Lim & Lee, 2001)에서와 같이 자율성이 높은 제 2유형도 역할에 있어서 한계점을 명시하였을 때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은 전체 6명중 4명이 종교를 가지고,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종교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유형은 간호학영역에서 의료진·환자·보호자 등과의 관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직 간의 관계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유형을 학부과정동안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해준다면 병동 내에서의 간호활동들을 신명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은 인간관계에 발생한 문제들을 싫어하여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형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제 3유형은 '소극형'으로 소수와의 관계를 즐기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즐겨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먼저 리더하기 보다는 정해진 규칙이나 명령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Holland(1985)의 '예술적 유형'과 비슷한 이 유형은 감상 및 상상성에 의존하는 예술 분야에 적합한 인성 유형으로서 자유롭고 비체계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정서적, 관념적, 비현실적이다(Choi, 2002; Lee, 2001; Park, 2003).

이 유형은 전체 27명중 1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간호 대학생들의 MBTI검사 결과 외향성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결과와는 상반된다(Lim, Yoo, & Oh, 2001). 이는 MBTI 성격 유형이 외향-내향형, 감각-직관형, 사고-감정형, 판단-인식형으로 분류된 선호지표가 통합적인 성격 유형을 보지 못하는데서 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 유형은 전체 13명중 1, 2학년이 10명을 차지하여 아직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년에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는 임상실습 과정동안 환자·보호자·의료진과의 관계를 통한 다수와의 만남의 기회가 적음으로써 외향적인 성향으로 발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유형은 자신의 예술적인 감각을 간호학과 접목하여 발달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병원 코디네이터나 병원 인테리어와 같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신명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간호학에서도 각 개인의 직업인성에 맞는 직업의 영역들을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 유형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직업인성은 각 개인의 내면의 것들이 반영된 것이므로 직업인성의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Q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대상자 선정은 서울시 H대학 간호학과 2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업인성에 대한 Q 모집단은 커리어개발센터 연구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직업인성에 관한 진술문과 Holland(1985)의 직업인성 이론을 통해 구성된 문항 총 28개를 가지고 실시하였다. 대상자에게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먼저 성별, 학년, 종교, 가족 내에서 순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가 Q-진술문들을 자신의 의견에 따라 강제분포(forced-normal distribution)를 한 후 PC용 Quanl Program으로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직업인성은 세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제 1유형은 '세심형'으로 소수와 깊이 있는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으며, 징검다리도 두들겨 건너고자하는 조심성을 나타냈으며, 친밀한 계획 하에서 행동하는 것을 즐겼다. 제 2유형은 '적극형'으로 다수의 사람들과의 사교적인 활동을 즐기면서, 상황 파악에 신속하면서 변화에 대해 탁월한 대처 능력을 발휘하였다. 제 3유형은 '소극형'으로 소수와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갖기를 원했고, 타인을 리더하기 보다는 결정된 의사를 따르는 성향을 보였다. 세 가지 유형 모두에게서 NGO활동이나 정치 활동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직업 인성이 발견되었으며 간호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정치나 NGO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무관심보다 접할 기회가 적은 것과 현재 존재하는 교과과정들이 간호 관련 학문에만 치중된 결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이 요구되며, 또한 자신의 인성에 맞는 올바른 직업 선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직업 인성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과 간호실무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인성별 졸업 후 취업현황, 직무만족도, 이직성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직업 인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간호 대학생들의 관심 영역이 약한 정치나 NGO활동관련 교과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간호 대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인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직업에 대한 취업 road map의 개발이 필요하다.

## References

- Anchors, W. S., Robbins, M. A., & Gershman, E.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Jungian type and persistence to gradu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 psychological Type*, 17, 20-25.
- Choi, C. S. (2002). *The analysis of the personality types and the tendency of career ch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of Korea, Yeungnam.
- Choi, D. S. (1997).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related behaviors of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to school and occupational valu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Holland, J. L. (1959). A theory of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 34-45.
-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land, J. L. (199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2n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Hwang, S. S., & Kim, E. J. (2002).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Defense Mechan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 *J Korean Acad Nurs*, 32(4), 447-458.
- Kim, H. S., & Won, Y. M. (2000). *Q Methodology*. Education & Science Publication.
- Kim, J. H., Lim, S. L., & Lee, D. S. (2001). Personality Style and Job Stress-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Autonomy and Sociotropy -,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5), 813-823.
- Kim, M. S., & Park, Y. B. (199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ob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Nurses on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 Korean Acad Nurs*, 29(6), 1434-1444.
- Kwon, Y. H. (1998). *Relationship between nurses' personality type and job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 Ji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H. L. (2001). *Career Counselling*, Gyeongbuk, Yeungnam University Publication.
- Lee, S. M. (1995).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Factors on Work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rvention, *J Korean Acad Nurs*, 25(4), 790-806.
- Lim, J. Y., Yoo, I. Y., & Oh, S. N. (2001).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SAT score and GPA of student Nurses, *J Korean Acad Nurs*, 31(5), 835-845.
- Myers, I., & McCaulley, M. (199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BTI*(Kim, J. T., Shim, H. S., Jae, S. B. translate), Korean psychological lab, Seoul.
- Park, J. J. (2003). *The analysis of the personality types and the tendency of career choices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of Korea, Yeungnam.
- [http://www.searchfirms.co.kr/emp/industry/htng\\_news\\_view.asp?no=5134&page=13](http://www.searchfirms.co.kr/emp/industry/htng_news_view.asp?no=5134&page=13)
-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14&sub\\_cat\\_id=149&is\\_sub\\_no=267&article\\_id=456](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14&sub_cat_id=149&is_sub_no=267&article_id=456)

##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Kim, Boon-Han<sup>1)</sup> · Kim, Yoon-Sook<sup>2)</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2)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Method:** A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factors in nursing students' personality-based career attitudes. A Q sample was collected from in-depth and objective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s. A P sample consisted of 27 nursing students. **Result:** Results revealed three factors: Deliberateness-oriented, Positive-oriented, and Negative-oriented. The 'Deliberateness-oriented' factor was characterized by preference of logical and objective ways in evaluation and trying to seek deep relationships with only a small number of people. The 'Positive-oriented' factor showed creative, autonomous and sociable traits and put value on extensive interpersonal relations. The 'Negative-oriented' factor focused on possibility and enjoyed artistic actions. All 3 factors were negative in NGO or political activities.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 curriculum

development for nursing students should give students a variety of experiences. These findings will be the basic data for finding appropriate positions within the work place for nursing students and help them select appropriate careers for their own personality typ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Career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Yoon-Sook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17 Haengdang-dong, Seongdong-gu, Seoul 133-791, Korea*

*Tel: +82-2-2290-1824 Fax: +82-2-2291-0342 E-mail: well67@freechal.com*